

목함에 넣어 물에 띄워 버린 아이에 대하여

Dieter Eikemeier

I

自動車を 타고 濟州島 東北쪽을 向하여 가신다면 한 40 分만에 松堂이라는 마을에 到達하시겠습니까. 松堂리는 模樣으로도 人口의 크기로도 이섬의 다른 마을과 거의 다름이 없으나 文化上으로는 다른 마을에 비해 좀 드러나는 곳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松堂은 무슨 神話의 活動이?/줄거리가? 始作하기도 하며 끝나기도 하는 場所이며 또 그 神話는 濟州島의 여러 마을에서 해마다 벌이는 堂굿 때에 이야기되기 때문에 松堂은 다른 곳보다 濟州島民의 念頭に 깊이 남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松堂神話의 活動을 開始하기도 하며 活動이 進行하는 중에 새로 나타나는 에피소드를 紹介하기도 하는 話素와 그 話素가 이루는 松堂神話와 비슷한 傳說是 韓國陸地에서, 나아가서는 韓國陸地를 넘어 古代 印度와 古代 이집트에서도 發見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松堂神話와 그 神話を 이루는 話素는 濟州島 堂굿의 重大性에도 不拘하고 文化上으로 濟州島와 韓半島를 世界와 聯結한 一環이므로 이번 學術會議의 主題에도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에 나타나는 傳說의 內容을 紹介하는 것은 본 發表의 첫 부분이 됩니다. 둘째로는 그 傳說이 어떻게 전과되었는가 하는 問題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며 그 다음에는 그 전과가 전개된 곳으로 silkroad 가 아니라 韓半島와 世界와의 交流가 이루어진 길로 海路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II

松堂神話는 韓國과 韓國學界에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것으로 보며 그神話의 內容을 좀 仔細히 紹介하는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의 出發點은 어느 서울의 家門입니다. 그 집의 父母가 아버지의 任務 關係로 不在中일때 백주라고 하는 그의 딸은 스님의 아이를 妊娠하게 됩니다. 父母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 아버지가 딸을 무쇠철갑에 넣어 바다에 띄워 버립니다. 딸은 바다에서 漂流하면서 아들 일곱을 낳습니다. 그 무쇠철갑은 마침내 濟州島 東北海邊에 坐礁하게 되는데, 松堂의 堂 하나에 奉安되어 있는 소천국이라고 하는 神은 바닷가에서 그

무쇠철갑을 發見하고 그 무쇠철갑속에 갇혀있던 백주와 그의 아들들을 解放시킨 다음에 그들을 모두 松堂에 데리고 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松堂에서는 백주가 딸 여덟을 더 낳습니다. 그러나 夫婦間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백주는 소천국과 갈라서는데 아이들을 자신이 돌보기로 합니다. 큰 아들이 공부를 始作할 때가 되어 그를 漢文先生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백주가 큰 아들을 데리고 소천국을 訪問하기로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자마자 미칠듯이 기뻐하며 무릎에 뛰어올라 아버지의 가슴을 두드리고 그의 담뱃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 行動을 不孝로 여기고 대단히 忿怒하여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주는 소천국의 殘酷한 意向을 斷念시킬 수 있었으며, 소천국으로 하여금 무쇠철갑을 만들게 하여 소천국은 아들을 죽이지는 않고 그 무쇠철갑에 넣어 바다에 띄워 버립니다.

무쇠철갑에 갇혀 바다에서 漂流하던 아들은 西海龍王國에 到着하며 龍王의 셋째 딸과 結婚합니다. 그러나 그는 큰 일을 이루고 싶은 사람으로서 閑暇한 生活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江南天子國을 攻擊하는 賊軍을 몰아내기를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한번 더 무쇠철갑을 타고 그 나라로 出發합니다. 江南天子國에서는 元帥의 지위에 올라, 賊을 눌러 勝利를 거두었고 天子는 아들에게 그 공로에 대한 報答으로 濟州島로 歸國하기를 許諾합니다. 아들은 濟州島에 도착한 후,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無事히 다시 살아온 일에 어리둥절한 父母에게 아무런 注意를 기울이지 않고 바로 漢拏山 꼭대기로 올라가 濟州島에서 제일 높은 神으로서 이섬의 神界를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松堂神話와 같이 무슨 箱子같은 데에다 아이를 넣어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 話素를 갖고 있는 說話의 다른 하나는 또 濟州島를 對象으로 하며 三姓神話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득한 옛날에 各其 良乙那 高乙那 夫乙那 라고 하는 세 兄弟가 濟州島 땅에 나타납니다. 그 세 兄弟는 어느날 濟州島 東岸으로 떠 내려온 木函을 發見하고 그 木函을 엽니다. 그 속에는 또 하나의 石函과 그 石函을 保護하는 使臣이 있었습니다. 그 石函을 열었을 때 靑衣를 입고 있는 세 處女와 씨말, 장맛지 그리고 五穀 씨앗이 出現합니다. 그 使臣이 말하기를 日本王이 濟州島 세 兄弟가 한 나라를 創始하려고 하는 意志가 있으나 配偶者 없이는 그 作業에 着手할 수 없을 것을 알고 그의 딸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 兄弟가 그 세 처녀와 각각 結婚한 다음에 農業을 始作합니다. 또 그 兄弟들은 각각 支配할 地域 하나씩을 定하기로 하고 畵畵를 쏘아 濟州島를 세 部分으로 分割합니다.

濟州島로부터 韓半島로 눈을 돌려 보면 話素上으로 三姓神話와 비슷한 이야기를 두 가지나 만납니다. 그 傳說是 모두 新羅의 最初 王權과 關聯된 것으로 松堂神話와 는 달리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아 대강의 줄거리만 소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어떤 老婆가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海岸에 碇泊한 배위에 한 때의 까치가 날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를 이상히 여겨 그 原因을 알아보려 배를 저어 바다로 나가 그 배에 다가가 보니 배안에는 한 사내아가 櫃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龍城國이라고는 나라 出身이라고 하며, 어머니가 알을 낳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 알에서 男子 아이가 나타나서 자신의 後裔로 임금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느끼고, 그런 일을 警戒하여 어찌면 알에서 나올지도 모를 아들에게 그의 故國外 다른 곳에서

스스로 王國을 設立하게 할 目的으로 그 알을 櫃子에 넣어 바다에 띄워 버렸다고 합니다. 老婆는 龍城國의 아이를 길렀고 그 아이는 마침내 新羅의 脫解王 (在位 57-80)으로 卽位하며 昔王氏族의 祖上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었던 바입니다. 그리고 新羅에서 金王氏族의 祖上으로 받들어 모셨다고 하는 闕智王 (卽位 西紀 後 8)도 支配하기로 된 王領에는 櫃子에 갇혀 있는 채로 到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櫃子는 바닷가에 坐礁하는 대신에 하늘에서부터 地上에 걸치는 자줏빛의 구름에 쌓여 나무가지에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引度東北쪽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만한 傳說 두세개 더 만납니다. 그 傳說의 하나는 西紀 後 五世紀 初에 活動中인 Buddhaghosa가 記錄한 것입니다. Buddhaghosa의 記錄은 佛敎 修道院의 戒律 (Skr. *vinaya*)을 內容으로 하며 P. Majjhimanikāya라고 하는 概略書에 關한 註釋書에 揭載되어 있는 것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傳說은 어떤 佛敎的인 意味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P. Vajjī/Licchavī, Skr. Vṛjji/Licchavi라고 하는 部族의 번성에 關한 이야기입니다. Licchavī 部族은 西紀 前 六世紀와 五世紀間에 세력을 떨치게 되고 그의 權威가 강력한 동안에 P. Vesāli/Skr. Vaiśālī라고 하는 데를 그의 首都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Vesāli가 首都로 發展하게 된 것이 곧 그 傳說의 要點입니다. Vārānasi/Benares 地域을 中央으로 하는 王國의 王妃는 일종의 살덩어리를 낳았으며 임금이 그 일에 失望하여 非難하기 때문에 王妃가 그 살덩어리를 사발속에 넣고 사발에 그 살덩어리가 태어난 데를 알리는 標를 붙인 다음에 그 사발을 Gangā江에 띄워 버립니다. 사발은 江을 떠내려가다가 畜産하는 사람에게 發見됩니다. 사발속에 있던 살덩어리는 반달만에 둘로 쪼개지더니 또 반달만에 손발이 成長하기 始作하여 마침내 그 두 살덩어리의 하나는 男子 아이가 되며 다른 하나는 女子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살덩어리를 물에서 求出한 그 사람은 떠돌이로 畜産하는 사람으로 다른 곳으로 移住할 時期가 다 되니 그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며 그 친구는 살덩어리에서 나타난 아이를 친자식처럼 自身의 아이들과 함께 키웁니다. 그러나 自身의 아이와 살덩어리에서 태어난 아이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그 畜産業者는 自身의 아이와 주워다 기른 아이를 떼어 놓기로 하고 주어다 기른 아이를 데리고 임금에게서 받은 地域으로 移住합니다. 임금이 割當한 地方에서 살덩어리에서 태어난 男子 아이는 임금이 되고 자신의 雙童이인 女兄弟와 結婚합니다. 그리고 그 結婚에서 생긴 子息도 자기네들끼리 結婚하며 그의 後帶의 子息도 次例次例 그 慣習을 지켜 結婚을 통하여 Licchavī 氏族을 合體하여 갈뿐 만 아니라 때가 經過함에 따라 地方의 人口가 漸次 헤아릴 수 없는 程度로 成長하기 때문에 그 首都는 漸次 成長 (visālikatattā) 함으로 그 의미에 따라 Vesāli/Vaiśālī라고 하기로 되었습니다.

Buddaghosa의 記錄의 內容이 변이된 텍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引度에서 유랑하며 佛敎를 공부하며 中國에서 佛敎를 宣敎한 教師중에서 제일 有名한 승려의 하나로 알려 있는 法顯 (fl. 399 - 414)이 만든 것이며 다른 텍스트는 法顯에 못지않게 업적이 두드러진 승려 玄奘 (602 - 664)이 쓴 것입니다. 그 텍스트 둘이 모두 漢文으로 쓰여진 것이며 Buddhaghosa가 쓴 바와 같이 Gangā로 떠내려가는 아들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나 그 목적은 Buddhaghosa의 記錄과 다릅니다. 그 두 記錄이 처음부터 그 아들들의 戰士的인 재주를 強調하는 것과 그 아들들이 자신들의 出生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는 자신들의 祖國까지 征服하러 從軍을 하는 것이 그 두 이야기의 共通된 特色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頂點은 祖國의 破滅을 求해내는 것이며 그 에피소드는 좀 자세히 소개할 만한 점입니다. 王의 親父가 아들의 計劃을

알아보자 대단한 絶望에 빠지나 王妃 親母는 그를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城의 東쪽에 塔을 세우게 하시면 賊이 다가올 때 제가그 塔위로 올라가 攻撃을 막겠습니다라고 합니다. 實際로, 賊軍이 城앞에 나타났을 때 親母는 塔위에 올라가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아 흐르는 젖을 城 밑에 서 있는 아들의 입에 흘려넣자 아들은 塔위에서 있는 女性이 그의 어머님임을 알아차리고 武器를 버립니다.

그 두 說話가 *Vaiśālī* 와 關聯된 것이지만 *Vaiśālī* 는 傳說에 따라 다른 役割을 갖고 있습니다. 法顯의 이야기에 依하면 아들들이 *Vaiśālī* 보다 *Gangā* 上流에 位置하는 王國을 祖國으로 하기 때문에 *Vaiśālī* 는 아들이 攻撃에 나서는 곳이 됩니다. 玄奘이 記錄한 것과 달리 法顯의 이야기는 아들이 *Vaiśālī* 를 祖國으로 하며 求出되며 자랐던 *Gangā* 下流로부터 祖國을 攻撃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Vaiśālī* 가 攻撃의 出發點이든지 終點이든지 또는 法顯이 記錄한 傳說이든 玄奘이 記錄한 傳說이든 軍隊가 攻撃할 찰나에 武器를 버리는 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和解性이 權力慾을 이긴다고하는 結末을 갖고 있는 이야기로서 *Vaiśālī* 와 關聯되어 있는 것은 偶然이 아닌 일입니다. 왜냐하면 *Vaiśālī* 의 近處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무슨 *caitya* 가 서 있었으며 그 *caitya* 는 부처님이 *parinirvāna* (Chin. 般惶槃那)하러 찾았다고 하는 곳으로 佛家가 그를 대단히 尊敬해 왔던 것입니다. 또 그 *caitya* 의 이름은 *cāpāla* (放弓杖, 활과 무장을 버리기)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法顯과 玄奘은 和解와 平化적인 여운을 남기고 *Vaiśālī* 를 讀者의 마음에 새길 목적으로 물에 버리는 아들의 이야기를 하기전에 그 *caitya* 와 關聯된 *mahāparinirvāna* 와 *cāpāla* 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을 단단히 가르쳐 讀者에게 記憶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하는 傳說은 모세의 갓난아기적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西記前 1000 년과 500 년 사이에 처음으로 記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內容은 濟州島와 韓半島에서 찾은 傳說과 같이 잘 알려져 있다고 믿고 짧게 언급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파라오 時代의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루인 어머니에게서 誕生한 남자 갓난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命令에 따라 히브루인 어머니 하나가 그의 아기가 파라오의 執行吏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갈대로 만든 설기에 그의 아기를 넣어 니일강가에 버립니다. 파라오 딸중의 하나가 江에서 沐浴할 때 그 설기를 發見하고 설기속에 누워 있는 갓난아기가 히브루계임을 곧 알아보았으나 悲痛의 눈물을 흘리는 아기의 슬픔을 느끼고 그 아기의 어머니에게 돌려 주어 젖을 먹이도록 합니다. 파라오 딸은 그 아이가 成長한 다음에 養子로 삼았고 물에서 끌어올렸으므로 이름을 모세라고 하기로 합니다.

III

방금 좀 소개해본 傳說의 전과는 공간적인면으로나 시간적인면으로나 상당히 놀라운 것이며 그 傳說이 어떻게 전과되었겠느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전과의 상황을 밝히면서 어린 아이, 아니면 아이가 태어날 알이나 살덩어리를 상자에 넣어 물에 띄워 버린다는 화소는 그 傳說의 이야기를 개시하기도 하며 활동이 전개되는 중에 새로 나타나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그 傳說속에서 中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화소에 시선을 집중하여, 주로 그 傳說이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출현하며 또 그 화소의 중대한 세부사항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 화소를 갖고 있는 전설을 둘러볼 때 즉시 눈에 띄는 것은 그런 전설이 모두 해안에 가까운 곳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큰강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반면에 그런 전설이 silkroad 좌우에 알려져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든지 제가 발표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 내지 못했든지를 떠나서 그런 자료가 언젠가 수중에 들어올 가능성은 대단히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해당의 화소를 갖고 있는 전설이 바다나 큰강과 밀접하여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그 화소가 다만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을 황홀케 하며 그런 사람에게만 그 화소로 이야기를 만들도록 영감을 줄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 논고에서 다루는 전설과 비슷한 이야기가 앞으로 더 나타난다면 대체로 해안에나 큰강가에 속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전설의 근거에서 되풀이 하여 활동을 추진하는 화소는 silkroad 를 잘 부적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화소의 전파가 전개된 지역과 진로로 고려할 만한 것으로는 아시아 대륙과 silkroad 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한 지대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ilkroad 는 그 화소가 전파된 진로로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화소가 전파된 곳으로는 바다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ilkroad 를 통해 서양과 동양과의 교류가 진행됐다고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한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품과 문화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 곳에서 또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그 진로의 출발점과 종점 사이의 여러 곳에서 발자국을 남겼을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소의 전파를 확인할 만한 표시는 방금 소개한 전설이 보존되어 있는 텍스트에 아무 것도 없으며 또 그 문서와 다른 자료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소가 전파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또 그렇다면 바다로 진행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좀 힘든 것입니다. 적극적인 증명의 부족을 보충하고자 할 때 어떤 화소를 이루는 세부 요인이 수량으로나 내용으로나 거의 같으면 그 화소가 각기 기원된 것이 아니라 전파되었다고 하는 가상이 널리 인정될수 있을 것 같으며 이번 경우에도 적용하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의심할 여지는 아직 있습니다. 상기의 화소가 발견된 두 장소간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의심의 제일 중대한 이유입니다. 그 곳이 서로 몇천 킬로미터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silkroad 가 중단없이 이어져 있다고 믿고 있더라도 silkroad 와 맞을 해로는 쉽게 상상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파에 대한 가설의 설득력도 좀 약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본 논고에서 다루는 전설을 발견한 장소들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그 전설이 여덟개를 넘지 않는 것을 그 전설을 이루는 화소가 전파되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사실로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발견한 전설이 모두 텍스트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며 텍스트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저절로 시야를 국한시키는 일입니다. 시야를 더 국한시키는 상황은

텍스트를 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며 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옛날에 대체로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발전된 곳에서만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한 전설의 수와 그 전설을 발견한 곳의 수를 이 관점에서 보면 그 수가 적음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며 그 화소가 전파되었다고 믿는 가설을 무효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점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설을 보존하는 텍스트에는 그 시대에 앞서 글로 기록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그의 내용을 수용했음을 상기하는 자취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전설이 글로 기록되기 전에 그의 내용을 전승한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 내용을 구전으로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구전한 사람은 대체로 뱃사람이며 그 전설을 항구에서 항구로 알렸을 것도 같습니다. 이 가설은 그 전설을 이루는 화소가 기가 막히게 먼 거리를 거쳐 알려져 있는 사실뿐 만 아니라 그의 전파가 해로를 통해 전개되었으리라는 추측에도 잘 맞을 것입니다.